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주일 낮예배는 11시에 1,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1남, 1·2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8월 수요집회 시간에는 이범석 목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 및 냉방기기의 전원을 꼭 꺼 주세요.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8/12 식 당 봉 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유주연 김필순 김훈동
 오늘설거지봉사 : 박시내 김수진 최은미 이성범
 다음 주 설거지 : 양상철 박재란 김정우 박찬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열심히 일상을 감당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그들과 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땀별 아래서 기쁜 마음으로 흘리는 땀방울들이 그들의 영혼과 이웃들의 삶을 살찌우는 거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축제로 한 쪽은 들떠 있지만 어느 한 쪽은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게 않게 해 주십시오. 이념과 민족, 종교와 국가를 넘어서 사람이기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권미정	권 순	김경수	김범진	김미현	김수진
김승현	김수진	김유경	김윤수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정애
김종락	박영신	김희진	박홍재	문홍일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식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방 준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손성현	안경아	신진식	변혜정	안경진	이용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석철	장혜숙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은자	이지훈
임 영	정경례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연희	정재윤	정미경	정한구	왕영순	조병익	조정연	차혜심	노미향
한일철	조운숙	허준호	홍복선	홍춘숙	황영준	황영준	LK	

감사헌금:

강혜실	김대규	박경애	김필순	김정진	김혜영	박병구	김정애	박정숙
박창운	허정운	백혜숙	이범석	류정욱	장혜숙	차혜심	추현영	무명3

녹색꿈헌금:

곽새롬 김범진 김미현 류준모 심호선 이범춘 정수현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산다는 것

박미숙

유치원 가는 아이의 신발 끈을 매다가
아이의 무릎까지 낮아진 내 모습

산다는 것이
때로는 허리를 굽혀
낮아져야 하는 것

함성이 울리는 곳에서
애써 외면도 하고
두 팔을 들어 보이다가도
신발 끈 동여매며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며
바닥으로 가까이 낮아지는 모습들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
산다는 것 때로는
낮아져야 하는 것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악한 일과 부정한 이익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사십시오. 입으로 내어뱉는 말을 조심하며 사십시오. 죽이고 헐뜯는 말이 아닌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결눈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곁에 세워주신 생명의 파수꾼이 전해주는 가르침에 늘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김기석 목사	갈라디아서 / 이범석 목사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선생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최문희 선생 정경례 권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익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8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나 또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정말 돈이 필요 없었으면 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줄 테니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설교자인 나는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내 말을 들은 이들이 주는 선물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 선물은 대개 돈의 모양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는 물건을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 각자 만든 것을 값없이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렇다면 돈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없어서 곤란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래서 자기 능력이 닿는 만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배고프거나 춥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가겠지요.

19

부자들이 자기네 재물을 제대로 잘 쓰는 기술이야말로 모든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 학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배워서 익히려면 하나님과 직접 통해야 하니까요. 이 기술에 필요한 연장은 쇠나 구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착한 뜻(good will)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착한 뜻을 품어야 자기 재물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실로, 착한 뜻 그 자체가 기술이에요. 한 부자가 진심으로 가난한 이를 돕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망치, 톱, 끌 따위 연장 다루는 법을 배워 익혀야 하듯이, 훌륭한 부자가 되어 가난한 이들을 제대로 섬기려면 마음과 생각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을 하며 이기적인 생각은 지워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을 바라며 살 것인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유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모든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이요, 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나는 자주 부자니 가난한 자니 말을 합니다만, 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평등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자들이 자기 것을 내어줄 테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아낌없이 재물을 바칩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 병자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하나님께 종신서원을 한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합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은 독신자들에게 맡기고요. 부자들은 이 일로 우쭐거릴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들은 다만 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교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 영광이 비취지기를!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389년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장이었으며 명설교가였다.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